

문법 진단 평가를 위한 구글 독스(Google Docs) 활용 방안 연구

— ‘양식(forms)’ 기능을 중심으로

하성욱 서울오산고등학교

- * 이 논문은 제55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3.12.7.)에서 발표한 것이다. 학술발표 대회 토론자 및 익명의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에 따라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으나 미진한 점은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 I. 들어가기
- II. 구글 독스와 문법 진단 평가
 - 1. 왜 구글 독스인가?
 - 2. 왜 문법 평가인가?
 - 3. 왜 진단 평가인가?
- III. 문법 진단 평가를 위한 구글 독스 활용의 실제
 - 1. 평가 문항의 사전 제작
 - 2. 실제 수업에의 적용 및 교육적 의의
- IV. 나가기

I. 들어가기

국어 교육도 스마트 교육¹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전자 칠판 및 스마트 기기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정부의 시책('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보도 자료, 2011.06.)에 따라 교실의 환경이 점차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고, 각종 출판사 및 교육 관련 단체에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²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교과 교육에서 스마트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시도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과(김병수 외, 2011; 이선주 외, 2010 등)나 과학과 혹은 미술, 음악과 같은 예체능과(김미용 외, 2013 등)에 관한 것이다.

-
- 1 교과부(2011)에 따르면 '스마트 교육'이란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방법(pedagogy), 교육 과정(curriculum), 평가(assessment), 교사(teacher) 등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지능형 맞춤 교수 학습 지원 체제로서, 최상의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소셜 러닝(social learning)과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접목한 학습 형태를 말한다.
 - 2 창비의 똑똑샵(www.toktoksam.com), 비상 교육의 비바샵(www.vivasam.com)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한국어 교육(장예지 외, 2012; 한선, 2012; 흥은실, 2012; 주경희 외, 2012 등)에서 그나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어 교육이 아닌 국어 교육에서 스마트 교육에 대한 담론을 제기한 연구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문법 교육, 다시 문법 평가로 범위를 좁히게 되면 연구물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 환경이 변화했으면 그에 따라 문법 교육의 성격, 목표, 교수 학습 내용 및 방법, 평가 등에서도 변화를 추구해야 마땅할 것인데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스마트 교육 시대에 걸맞은 문법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법 진단 평가를 위한 구글 독스의 양식 기능 활용 방안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³

II. 구글 독스와 문법 진단 평가

1. 왜 구글 독스인가?

구글 독스는 구글 사(社)가 문서 도구(docs.google.com)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문서, 프레젠테이션 및 스프레드 시트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동으로 작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구글 독스의 ‘양식(forms)’ 기능은 본래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3 현장 교사들 모두가 앱(App)이나 웹 콘텐츠(Web contents), 비디오 및 오디오 등의 매체(media) 자료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이겠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현장에 그리 많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글 독스(Google Docs)를 활용하여 현장 교사들이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법 진단 평가의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안된 것이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설문 조사에 비해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이어서 학술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지를 온라인상에서 제작하는 것도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가능해 컴퓨터 초보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Oxnevad(2013)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구글 독스는 스마트 교육의 요긴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설문 기능에 충실히 만들어진 콘텐츠이지만 그 장점을 십분 활용하면 스마트 교육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Oxnevad(2013)는 구글 독스 양식 기능이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즉, 그의 연구에서 유튜브(youtube), 플루바루(flubaroo), 이미지(image) 등과 구글 독스 양식 기능을 연계한 수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구글 독스 양식 기능은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efficient tool)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법 진단 평가도 이에 주목한 것이다.

2. 왜 문법 평가인가?

구글 독스 양식을 문법 이외의 영역인 문학, 독서, 작문, 화법의 평가에는 활용할 수 없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학, 독서, 작문, 화법의 평가에 충분히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영역의 평가에 활용하는 것에 비해 문법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구글 독스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콘텐츠이기 때문에 평가지를 구성하는 데에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즉, <보기>나 지문 프레임을 평가지에 넣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나 독서(비문학), 화법과 같이 텍스트가 요구되는 평가 문항은 사실상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즉, 그림과 같이 평가지를 구성할 때에 ‘질문 제목’, ‘도움말 텍스트’, ‘질문 유형’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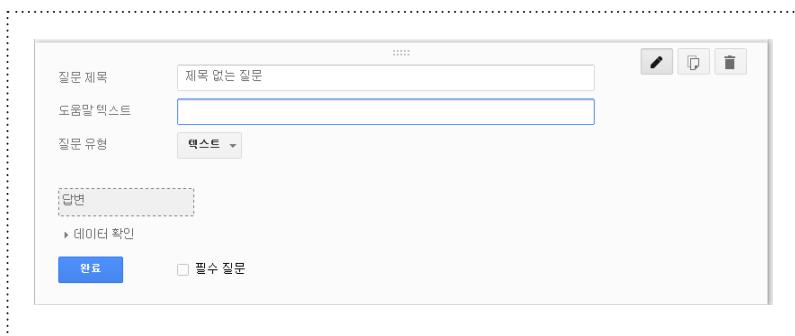


그림 1. 평가지 구성 화면

있어 <보기>와 지문을 넣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이나 독서, 회법은 주어진 텍스트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보다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한 평가지를 구성하면서 텍스트로 시를 제시하지 않고 문항을 구성하는 것은 타당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독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냉장고의 원리’라는 텍스트를 제시하지 않고 글에 대한 이해나 추론을 묻는 것은 억지이다. 이들이 지식보다는 상대적으로 기능이나 맥락이 더 강조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작문 평가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⁵

하지만 문법은 이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문법은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에 방점을 두고 있는 영역이다. 최근 들어 기능이나 맥락도 주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그 기반은 여전히 지식이라 할 수 있다. 박보현 (2013: 48)에서도 문법 교육의 결과로써 문법 교육의 중핵적 내용 요소인 문

-
- 4 그렇다고 이러한 영역들에서 지식이 필요 없다거나 이를 영역에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구글 독스 양식 기능을 통해 이러한 영역의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한 것일 뿐이다.
 - 5 다만 작문 영역의 평가의 경우 구글 독스 기능에서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기능은 하나의 워드 문서나 엑셀 문서를 여러 명이서 동시에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추후에 다루고자 한다.

법 지식을 평가하는 것은 당위적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문법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실제 사례에의 적용이나 탐구와 같은 문법적 사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성욱(2007: 2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법의 특성상, 문법 지식을 도구로 하지 않는 문법적 사고는 불가능하다. 문법 지식은 문법적 사고에 의하여 생성되며, 문법적 사고에 의하여 분석되며, 그리고 문법적 사고에 의하여 이해되고, 조직화되고, 평가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변형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문이나 <보기>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간단한 발문만으로 평가지를 구성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 예를 들어 ‘자음 축약 현상은 무엇인가?’, ‘자음 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의 예를 하나 쓰시오.’와 같이 간략한 발문으로만 발문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평가 요소를 문항으로 구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영역에 비해 문법 영역이 구글 독스 양식 기능을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3. 왜 진단 평가인가?

사실 진단 평가 외에도 형성 평가, 총괄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문항을 구글 독스 양식 기능을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진단 평가에 주목을 한 것은 구글 독스 양식 기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에 이들 중 진단 평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Alderson(2005: 11)은 진단 평가(diagnostic test)의 특성을 ‘빠르고 즉각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provide immediate results)’, ‘학습자의 강점보다 약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는 평가(more likely to focus on weaknesses than on strengths)’, ‘추후 교수 학습 활동에 대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평가(lead to remediation in further instruction)’ 등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를 구성할 수 있는 콘텐츠가 바로 구글 독스 양식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진단 평가와 구글 독스의 양식 기능이 가장 잘 접목되는 부분은 실시간 통계 기능이다. 구글 독스에서는 응답자들이 입력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엑셀(excel)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프를 통해 통계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어 응답자의 반응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추후에 SAS나 SPSS 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옮겨 통계 처리를 하기에도 용이하다.

진단 평가를 서면으로 하게 될 경우 학생들에게 평가지를 나누어 주고, 걷고, 채점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사들은 Davies(2006: 3-12)의 지적처럼 학습자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없이 직관에 의존하여 수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구글 독스를 활용하여 진단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게 평가를 마칠 수 있으며, 교사 역시 평가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학습자의 특성 파악이 용이해 진다. 그리하여 교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 교수 학습을 전개할 것인지 를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⁶

III. 문법 진단 평가를 위한 구글 독스 활용의 실제

1. 평가 문항의 사전 제작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구글 독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양식’을 활용하

6 협동 학습을 전개할 경우 진단 평가의 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모둠을 편성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여 문법 수업 초반에 활용할 진단 평가 문항을 제작해 보았다. 문항을 제작하기에 앞서 연구 대상 학생들에게 실제 수업을 전개할 문법 평가 문항 7개⁷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 요소와 각각 문항의 풀이에 요구되는 핵심 지식을 정리해 보았다. 이때 평가 요소는 2014학년도 EBS 연계 교재의 정답과 해설에 쓰여 있는 내용 요소를 정리한 것이며, 핵심 지식은 문항 풀이에 직접 간접하는 문법 지식을 키워드로 나타낸 것이다.

	평가 요소	핵심 지식	문항 출처
01	음운 축약	자음 축약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11번
02	음운 탈락	'ㄹ' 탈락	인터넷수능 실전 모의고사 3회 12번
03	단어의 형성	접미 파생어	수능특강 문법 연습 문제 04 2번
04	단어의 형성	합성어의 분류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12번
05	높임 표현	높임법의 유형과 실현 방식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15번
06	사동 표현	주동문의 시동문 전환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12번
07	부정 표현	부정 표현의 유형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13번

위와 같이 7개의 문항에 대해 분석을 한 뒤, 각 문항을 풀이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 지식을 간략화하여 진단 평가 문항을 구성해 보았다.⁸ 진단 평가는 말 그대로 교수 학습을 전개하기 전에 수업할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

-
- 7 실제 수업에서 진행한 7개의 문항은 모두 2014학년도 EBS 연계 교재들에 있는 내용을 재배열한 것이다. EBS 연계 교재의 문항을 선택한 이유는 이 문항들이 외부 검토를 여러 번 받아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받은 문항들이기에 타당도나 신뢰도 면에서 최소한의 검증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8 Alderson(2005: 11)에서 진단 평가는 앞으로 수업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어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나 알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 문항 풀이에 적용되는 핵심 지식을 단적으로 물어 보는 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문제의 형태는 객관식 선다형으로 제시하여 짧은 시간에 문항을 풀이하고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50분(고등학교의 경우)이라는 교수 학습 시간을 고려할 때, 진단 평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는 선지를 모든 문항에 제시하여 학생들이 모르는 것에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답을 찍어 정답을 맞히는 경우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였다.

진단 평가 문항에 대한 검토는 고등학교 5년 차 이상인 국어 교사 2명(석사 1명, 박사 1명)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검토는 수업에 사용할 7개의 문항과 진단 평가 문항을 함께 제시하고, 진단 평가의 문항이 7개의 문법 문항의 풀이에 요구되는 문법 지식을 정확하게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검토의 내용을 받아 연구자는 검토 내용을 반영, 수정하여 진단 평가 문항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확정된 문항들을 구글 독스 양식을 활용하여 평가지를 구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URL을 생성하였다.

<https://docs.google.com/forms/d/14vv9Rd81-XikVsGv8k425EwMN-pEYxKPT4-AobSE66Mo/viewform>

이와 같이 만들어진 주소를 수업 시에 학생들에게 그대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로 이렇게 긴 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http://bit.ly>’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해당 주소를 미리 ‘<http://bit.ly/1dBh6Nt>’으로 줄여 놓았다.⁹

9 ‘<http://goo.gl>’이라는 google url shortener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참고로 구글 서비스를 활용하여 줄인 주소는 ‘<http://goo.gl/yVzMwq>’였다.

2. 실제 수업에의 적용 및 교육적 의의

만들어진 진단 평가는 2013년 10월 30일(수)에 서울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1개 반 33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았다. 연구 설계 시 대상 학생은 36명이었으나 결석한 학생 1명, 하나의 스마트 기기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 2명은 실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를 2명에게는 서면 평가지를 나누어 주어 진단 평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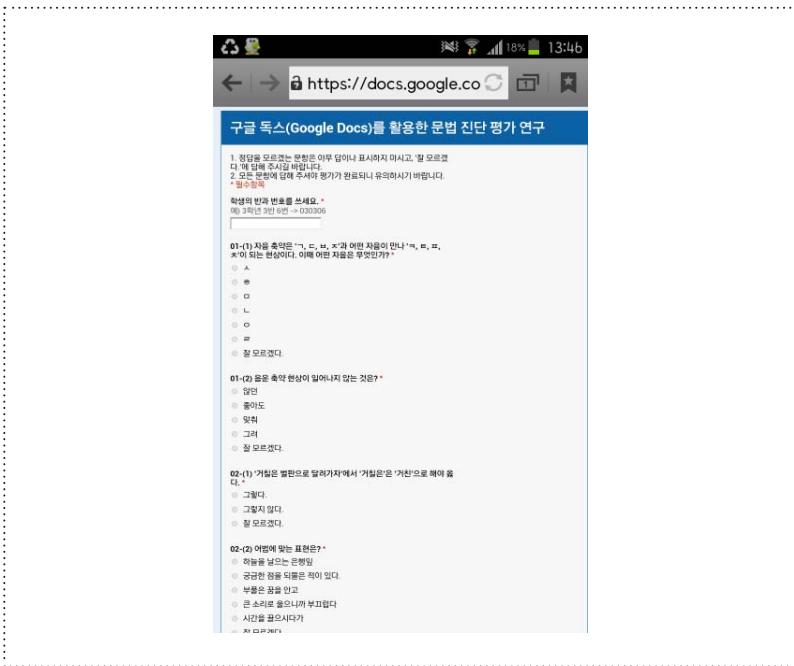


그림 2. 휴대 전화를 통해 진단 평가에 접속한 화면

수업이 시작되어 학생들에게 전시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 그림과 같이 문항지 사이트

10 다른 학생이 진단 평가를 하는 사이에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의 특성상 서면 평가지를 통한 응답의 내용은 통계 처리에서 제외하였다.

주소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기에 학생들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다.

진단 평가 문항은 개인적으로 풀도록 안내하였고, 문항을 푸는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답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선지에나 표시하지 말고 ‘잘 모르겠다.’에 표시하도록 지도하였다.¹¹ 또한 학생 자신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알 수는 없고, 연구자가 전체 수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솔직하게 표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렇게 문항 풀이가 끝난 후 연구자는 구글 독스 양식 사이트의 ‘응답 보기’와 ‘응답 요약’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이 문항 풀이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연구자는 듀얼 모니터 기능을 활용하여 ‘응답 보기’ 화면은 연구자의 컴퓨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응답 요약’ 화면은 교실에 설치된 LED 텔레비전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다.



그림 3. ▲ ‘응답 보기’에 접속한 화면

▲ ‘응답 요약’에 접속한 화면

그리고 연구자는 ‘응답 요약’ 화면을 보면서 학생들과 함께 진단 평가에 대한 문항 풀이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학생들이 어떠한 문항이 정답률이 높고 낮은지, 또 어떠한 문항이 ‘잘 모르겠다.’에 반응을 많이 보였는지, 어떠한 문항에 반응이 많이 갈리었는지 등에 대해 1번 문항부터 차례대로 살펴

11 혹여나 모든 문항의 답을 ‘잘 모르겠다.’에 표시하는 학생이 발생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전개한 진단 평가여서 학생들의 호응과 참여를 높일 수 있었던 듯하다.

보았다. 다음 표는 연구자가 학생들의 반응을 정리해 본 것이다.

문항	응답률 (음영은 평가 문항의 정답임.)						'잘 모르겠다' 응답률
	①	②	③	④	⑤	⑥	
01-(1)	0%	100%	0%	0%	0%	0%	0%
01-(2)	0%	100%	0%	0%	-	-	0%
02-(1)	97%	3%	-	-	-	-	0%
02-(2)	3%	97%	0%	0%	0%	-	0%
03	70%	3%	0%	6%	15%	-	6%
04-(1)	61%	21%	-	-	-	-	18%
04-(2)	70%	21%	3%	-	-	-	6%
05-(1)	58%	30%	-	-	-	-	12%
05-(2)	70%	21%	-	-	-	-	9%
05-(3)	61%	15%	-	-	-	-	24%
06-(1)	33%	36%	-	-	-	-	30%
06-(2)	64%	18%	-	-	-	-	18%
06-(3)	58%	30%	-	-	-	-	12%
07-(1)	97%	3%	-	-	-	-	0%
07-(2)	97%	3%	-	-	-	-	0%
07-(3)	0%	100%	-	-	-	-	0%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자가 이 학급에 대해 문법 수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연구자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업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1번, 2번, 7번 문항은 대부분의 학생이 정답을 맞히었고, '잘 모르겠다.'에 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음운 축약(자음 축약), 음운 털락('ㄹ' 털락), 부정 표현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개념 정도의 설명만 하고, 문제 풀이를 하였다.

반면 3번, 4번 문항은 대부분의 학생이 정답을 맞히었지만, 정답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잘 모르겠다.’에 답한 학생이 있어 앞의 문항에 비해 문법 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단어의 형성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부터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문항을 풀이하고, 다른 사례를 제시하여 개념 이해를 도왔다.

5번, 6번 문항은 정답률과 오답률이 비슷한 문항이 있었고(06-(1)), 심지어 오답에 더 많은 학생들이 응답한 문항(05-(1))도 있었다. 또한 ‘잘 모르겠다.’에 답한 학생의 비율도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높임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한 문법 지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5번과 6번 문항에 대한 설명은 다른 문항에 비해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이처럼 구글 독스 양식 기능을 활용하여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업 내용을 조정한 결과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나 참여도는 여느 때 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연구자는 수업을 마친 후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몇몇 학생들에게 수업 전개 방식과 내용에 대해 미니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 방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수업 전개 후 학생들은 “맞춤식 수업을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알 수 있어 좋았다.”, “내가 뭔가 수업에 참여하는 느낌이 들었다.”, “스마트 폰으로 문제를 풀며 오늘 배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어 수업에 더욱 집중했다.”, “특이해서 좋았다.”, “재미 있었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었다.

요즘 고등학교 교실의 학생들은 특정한 보상이 없는 한 스스로 발표를 하겠다고 자원하거나 교사에게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어떤 내용을 수업한 후에 “이해가 되니?”라고 물어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없다. 더군다나 수업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학생일지라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학생들이 구글 독스 양식을 활용한 진단 평가에서 위와 같은 인식을 보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Ferenstein(2010)은 트위터(twitter)를 활용하여 수업을 전

개할 때에 학생들의 참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digital communication)이 블랙홀(blackhole)과 같은 ‘교실 수줍음(Classroom shyness)’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이라는 것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진단 평가 역시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서면 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진단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업 성취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학습 동기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학업 성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IV. 나가기

사실 현재의 학교 현장은 실질적인 스마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드웨어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다. 모든 학생들이 와이파이(Wifi)망이나 3G, 4G 망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은 물론, 모든 학생이 개별적으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 기기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스마트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스마트 교육은 이제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마트 교육이 현실화되어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 하드웨어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어차피 피하지 못할 조류라면 먼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문법 수업을 하기에 앞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 평가를 구글 독스를 바탕으로 구성해 보고, 이를 실제 활용해 보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 것도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구글 독스의 양식 기능에만 한정한 것, 문법 진단 평가에만 한정한 것 등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연구자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보완은 후고로 미루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14. 1. 25. 투고되었으며, 2014. 2. 7. 심사가 시작되어 2014. 2.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대통령보고자료(06.29.)』, 미발간.
- 김미용 외(2013), 「스마트교육 수업 설계 모형 개발」, 『한국콘텐츠학』 제13권 제1호, pp. 467-481.
- 김병수 외(2011), 「구글 맵기반 사용자 참여형 안드로이드폰 프로그램 개발」, 『한국컴퓨터교육학』 제14권 제4호, pp. 11-20.
- 김정아 외(2011), 「스마트 러닝 환경에서의 평가학습 애플리케이션 개발」, 『정보교육학』 제2권 제1호, pp. 59-65.
- 박보현(2013), 「문법 평가에서 문법 지식의 위상 재고」, 『한국어문교육』 제13호, p. 48.
- 이선주 외(2010), 「구글어스 기반의 지리교육 사이트 개발」, 『한국공간정보학』 제18권 제2호, pp. 13-24.
- 장예지 외(2012), 「스마트 러닝을 이용한 한국어 문법 워크북 개발 방안 기초 연구」,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제13권 제1집, pp. 728-734.
- 주경희 외(2012), 「한국어 어휘 학습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분석」, 『제2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p. 628-637.
- 하성욱(2007), 「문법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평가 문항 개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 홍은실(2012), 「한국어 교육의 스마트러닝 구현을 위한 기초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44집, pp. 585-612.
- 한선(2012), 「스마트폰을 활용한 한국어 과제 학습 지도 방안 연구」, 『2012년 후기 국제어문학회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pp. 171-186.
- Alderson, J. C.(2005), *Diagnosing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The Interface Between Learning and Assessment*, New York: Continuum, p. 11.
- Davies, A.(2006), "What do learners really want from their EFL course?" *ELT journal* 60(1), pp. 3-12.
- Ferenstein, G.(2010), "How Twitter in the Classroom is Boosting Student Engagement," <http://mashable.com/2010/03/01/twitter-classroom>.
- Oxnevad, S.(2013), "New Ways to Use Google Docs Forms with Students," <http://gettingsmart.com/2013/09/4-new-ways-use-google-docs-forms-students>.

문법 진단 평가를 위한 구글 독스(Google Docs) 활용 방안 연구 —‘양식(forms)’ 기능을 중심으로—

하성욱

본고에서는 문법 진단 평가를 구글 독스를 바탕으로 구성해 보고, 이를 실제 활용해 보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구글 독스 양식 기능은 현장에서 문법 진단 평가를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실제 수업에서 구글 독스를 활용하여 문법 진단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쉽게 평가를 마칠 수 있다. 교사 역시 평가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학습자의 특성 파악이 용이해지게 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실험을 통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진단 평가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맞춤식 수업을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뭔가 수업에 참여하는 느낌이 들었다.”, “특이해서 좋았다.”, “재미 있었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문법 평가, 진단 평가, 구글 독스 양식

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plan of Google Docs for diagnostic test of grammar —Focused on a function of ‘forms’—

Ha, Sungwo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instrument through Google Docs form for diagnostic test of grammar, search for an actual utilization plan.

A function of Google Docs form is an effective instrument for diagnostic test of grammar. If teacher use a diagnostic test of grammar was made through Google Docs form, student could finish a test using smart devices. Teacher could check immediately and exactly the result of test. So teacher could understanding easily an attribute of their student.

Actually, This study carry a diagnostic test of grammar for smart device into effect in classroom. A awareness of student is mainly positive. “like a target education”, “I have a feeling a participation in lesson”, “It is bizarre.”, “It is interesting”. This can make a participation in lesson as well as a positve awareness of student.

KEYWORDS grammar test, diagnostic test, Google Docs form